

한국 방문 순교자 124명 시복...한국인 추기경 2명 임명

프란치스코 교황 선종

21일(현지시간)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생전 한국을 각별하게 아꼈다.

특별한 마음은 그가 즉위 후 선택한 아시아 첫 방문지가 한국이었다는 점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역대 한국인 추기경 중 절반을 프란치스코 교황이 임명했고 파격 인사로 애정을 나타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027년 '세계청년대회'(WYD) 개최지를 서울로 결정해 교황의 4번째 방문을 약속하기도 했다. 역대 대통령들과도 소통을 거듭하며 한반도 평화나 남북 관계에도 큰 관심을 쏟았다.

◇한국 찾은 역대 두 번째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4년 8월 14~18일 4박 5일간 한국을 방문했다. 한국은 그가 즉위 후 세 번째 외국 방문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첫 방문지는 전임 교황인 베네딕토 16세 시절 약속된 브라질(2013년)이었고 이듬해 3월 요르

세월호 참사 유가족 만나 위로

한국인 첫 교황청 장관 파격 인사

30여년 전 아르헨 병원서 헌신한
韓수녀들에 감복 “성모님 느낀다”

단·팔레스타인·이스라엘 순방이 두 번째 외국행이었다. 아시아 국가로는 한국이 처음이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방한에 앞서 윤지중(1759~1791) 바오로를 비롯한 한국 천주교 순교자 124위의 시복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뤄진 시복식은 한국 천주교회 역사상 세 번째였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방한 중 세월호 참사 유족을 위로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나 꽃동네 장애인 등 고통받거나 소외된 이들과 마주하며 한국 사회에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었다. 그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도했고 고급 방탄차 대신 준중

형 자동차를 이용하는 검소하고 소탈한 행보로 감동을 안겼다.

교황은 2025년 봄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산불이 확산해 큰 피해가 발생하자 위로의 뜻을 표명하기도 했다.

◇한반도 평화 간절히 기원

프란치스코 교황은 그동안 지상 유일 분단국이 자리한 한반도의 평화를 간절하게 기원했다.

평화의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 몸소 북한을 방문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피력했지만 끝내 이북 땅을 밟지는 못했다.

이백만 전 주교황청 한국대사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기회가 되면 북한에 꼭 가고 싶다”는 얘기를 했다고 밝혔다.

2018년 10월 교황청을 공식 방문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지난달 평양을 방문했을 때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교황을 만나 뵈 것을 제안했더니 평양을 방문하시면 열렬히 환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하자 프란치스코 교황이 “북한의 공식 초청장이 오면 갈 수 있다”고 답하면서 관심이

고조됐다. 2021년 10월 바티칸에서 문 대통령을 다시 만난 교황은 “초청장을 보내주면 여러분들을 도와주기 위해, 평화를 위해 나는 기꺼이 가겠다”고 방북 의지를 재확인했다.

교황은 2022년에는 KBS 인터뷰에서 “나를 초대해달라. 그러면 거절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교황청은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사관에 접촉하는 등 여러 경로로 방북 성사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지만 결국 이뤄지지 않았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방북 성사 여부와 별개로 한반도 평화 정착을 간절하게 기원했다.

2014년 8월 14일 성남 서울공항에 영접을 나온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분단과 대립의 한반도에 평화와 화해의 시대가 열리길 바란다”고 말하자 교황은 “한반도 평화를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왔다”고 답했다.

◇ 한국인 추기경 4명 중 2명 임명...첫 교황청 장관 파격 인사까지

프란치스코 교황의 인선에도 한국에 대한 배려를 읽을 수 있다.

한국인 추기경은 그간 4명이 배출됐다. 이가운데 염수정(82) 안드레아 추기경(2014년 서임)과 유홍식(74) 라자로 추기경(2022년 서임)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임명했다. 역대 한국인 추기경 4명 중 2명을 그가 임명한 것이다.

다른 두 명은 김수환 스테파노(1922~2009), 정진석 니콜라오(1931~2021) 추기경이다. 한국인 1호인 김수환 추기경은 1969년 교황 바오로 6세(1963~1978년 재위)가, 2호인 정진석 추기경은 2006년 교황 베네딕토 16세(2005~2013년 재위)가 임명했다.

특히 유홍식 추기경은 대전교구장으로 재직하던 2021년 6월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으로 전격 발탁됐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당시 주교였던 그를 장관으로 임명하며 대주교로 승품했다. 일반적으로 교황청의 각부 장관은 추기경이 맡는다는 점에서 파격 인사였다. 이는 세계 가톨릭교회의 총본산인 교황청 장관에 한국인이 임명된 첫 사례이기도 했다. 유 대주교는 이듬해 추기경으로 서임됐다.

/연합뉴스

피고인 윤석열, 형사 재판 사진·영상 첫 공개

군 간부들, “의원 끌어내라 지시”
윤, “계엄은 하나의 법적수단”

군 핵심 간부들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나서 “국회에서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일관되게 증언했다.

반면 윤 대통령은 “칼을 썼다고 무조건 살인이라고 봐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폈고, 윤 대통령 변호인측은 ‘신방성이 없다’며 군 관련자들의 증언을 깎아내리는 데 신문시간을 썼다.

21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형사합의 25부(지휘관 부장판사) 심리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두 번째 공판이 진행됐다.

지난 14일 첫 공판과 달리 이날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사진, 영상으로 처음 공개됐다.

윤 전 대통령은 1차 공판에서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93분간 발언을 했지만, 이날은 재판 진행절차와 관련해서만 7분간 발언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은 하나의 법적수단에 불과하고 칼과도 같다”면서 “요리도 할 수 있고 아픈 사람을 수술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협박이나 상해 등 범죄를 저지룰 수도 있다. 칼을 썼다고 무조건 살인이라고 봐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엄으로 인해 민주헌정질서가 무너졌는지, 장기 독재 진위 쿠데타라는 게 증명됐는지를

따져야 한다”면서 “이 사건에서 아무도 다치지나 유혈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다. 처음부터 그것을 감안해 소수의 병력을 동원했다”고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죄에 대한 다양한 헌법적 관점을 고려해 심리나 (증인신문) 순서가 고려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의견”이라면서 재판부의 증인신문 순서에 불편함도 드러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최재해 감사원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검찰이 신청한 38명의 증인에 앞서, 자신들의 결백을 입증할 증인을 먼저 신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검찰 측 증인으로 조성현 육군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이 법정에서 섰다.

조 단장은 지난 14일 첫 공판의 검찰 주신문에서 계엄 당일 이진우 당시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에 진입해 의원들을 끌어내란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인 송진호 변호사는 해당 증인에 대해 “이런 지시가 있었다고 했는데 가능해 보이냐”고 물었고, 조 단장은 “불가능한 지시를 왜 내리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조 단장은 “정당성을 떠나 군사작전적으로 가능했느냐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질문에는 “군사작전적으로 할 지시입니까?”라고 되물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진우가 증인에게 국회의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보기 힘들 것 같다’고 묻자 조 단장은 “여기서 다뤄야 할 건 그런 지시를 저에게 줬다는 것이고 해석은 나중에 이진우에게 물어봐야 할 것 같다”고 대답했다.

예정된 신문을 마친 후 재판부에 발언기회를 얻은 김 대대장은 “군 생활을 23년간 하면서 과거나 지금이나 바뀌지 않은 게 한 가지 있다.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것”이라면서 “전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조직에 충성하고, 조직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대장은 “조직은 제게 국가와 국민을 지키라는 임무를 부여했다”면서 “12월 4일 받은 임무를 어떻게 수행하겠나. 저는 조직에 충성하겠다. 저를 차라리 항명죄로 처벌해달라”고 덧붙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에 김상욱 직무대리 임명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전
당장)에 김상욱(사진) 현 전
당장 직무대리가 임명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1일
신임 ACC 전당장에 김상욱
직무대리를 임명했다고 밝혔
다. 신임 김 전당장은 연세
대 행정학과를 졸업했으며
미국 인디애나대 예술학 석사과정, 동국대 문화콘
텐츠학 박사과정을 졸업했다.

1991년 제 34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한 김 전
당장은 그동안 문화체육관광부 뉴미디어홍보과장,
관광정책과장, 예술정책과장을 역임했다. 이후 콘
텐츠정책관, 관광산업정책관을 거쳤으며 지난
2023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ACC 기획운영관을
맡았다. 올해 2월 이강현 전당장 퇴임 이후 직무대
리를 맡아왔다.

다양한 문화를 만드는 ‘문화발전소’의 선장 역할
을 담당할 전당장은 콘텐츠 창작자를 비롯해 교육,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역할이 막중하다. 신임 김
전당장에 대한 지역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큰 만큼
향후 문화전당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발전소의 역
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리
더십을 발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당장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의 핵심
시설인 ACC를 아시아 문화를 선도하는 기관으로 만
들고 싶다”며 “광주시민들과 함께 지역문화를 활성화
해 시민들이 사랑하는 문화공간으로 가꾸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박성현 기자 skypark@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중 앙 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7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 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 수 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권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분양대금 연체 등,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중앙신용정보
010-2785-0073

직통전화 062)521-4109

합병으로 인한 채권자 이익제출 및 주권제출 공고

한우코리아 주식회사(“갑”)와 주식회사
담음이엔씨(“을”)는 상법 제522조에 따라 2025년 04월
21일 개화한 각 회사의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갑”은 “을”을
흡수합병하여 그 권리 의무를 일체를 승계하고 “을”은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 합병에 의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 게재일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각 회사에 이익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회사의 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및 집권자에서는 동 기간 내에 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의의가 없으면 합병 등에 의의 없이
승인한 것으로 간주함을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2일

“갑” 한우코리아 주식회사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미라산길 2, 상가동 301호
대표이사 박영수

“을” 주식회사 담음이엔씨
전라남도 순천시 풍덕8길 13, 2층(풍덕동)
사내이사 박형준

73년을 밝혀온 호남언론의 상징 -
지역과 함께, 독자와 함께
“100년 신문”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 지역안내 •

북 구	• 동 광 266-1920	• 문 흥 266-1960
	• 북광주 525-3761	• 신 안 222-8171
	• 안 신 571-7658	• 오 차 266-7801
	• 동 통 433-1503	• 우 산 433-1503
동 구	• 남 광 673-6836	• 동 명 222-9054
	• 동 부 225-6001	• 중 앙 222-9054
	• 중 장 222-8171	
남 구	• 남 부 673-6836	• 백 운 651-1833
	• 북 신 673-6836	• 송 하 675-6805
	• 진 월 671-7276	
서 구	• 광 천 382-5788	• 상 무 372-2352
	• 서광주 369-1625	• 윤 천 376-7153
	• 치 평 376-6511	• 영 몽 603-0311
	• 화 정 369-1625	
광안구	• 은 남 952-1687	• 월 곡 959-1920
	• 청 단 973-2900	• 하 남 955-0451
	• 경 신 944-0444	